

# TIPLONews 한국어본

2025 년 9 월호(K313)

## 이달의 주제

K250825Y1

### 01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é) 프로그램 평가는 긍정적으로 계속예정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é)」<sup>1)</sup>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 년간의 AEPRé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평균 심사 기간은 22.8 일에 불과했다. 본 프로그램은 신청이 간편하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신청인/대리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혜재산국은 시범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

AEPRé 프로그램은 최초 심사 결정에서 일부 청구항만 기각되고 다른 청구항은 기각되지 않는 재심사 안건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최초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재심사 과정에서 최초 심사에서 결정되고 승인된 특허 범위로 특허 출원 범위를 수정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출원인이 AEPRé 프로그램으로 출원할 의향이 있는 경우, 재심사 안건은 AEPRé 프로그램을 통해 가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EPRé 프로그램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2025 년 8 월 25 일까지 총 45 건의 출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38 건이 심사 결과를 받았다. 출원인이 AEPRé 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심사 기간은 22.8 일이었다. 일반적인 재심사 절차가 심사 결과를 받는 데 약 10 개월에서 13 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AEPRé 제도의 시행은 출원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신속한 특허 취득을 지원한다. (2025.08)

역주:

1) 영어로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for Re-examination, (AEPRé)

K250814Y2

K250814Y3

**02 불법적인 개인 서버로 리니지 상표와 콘텐츠를 표절, 이로 인한 침해 금액은 50억 대만 달러**

대만 형사경찰국 지혜재산권 수사팀은 Gamania<sup>1)</sup>로부터 자사의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 콘텐츠 및 소재가 「리니지 진동」<sup>2)</sup>이라는 개인 서버에 불법 복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게임 시작 부분에는 「Gamania」, 게임 한국 개발사명인 「NCSoft」, 그리고 「리니지」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게임 콘텐츠와 그래픽이 완전히 동일하였고 이는 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었다.

1 년간의 조사 끝에 전담반은 이 조직이 차이(蔡)씨 성을 가진 대만인 용의자와 다른 네 명의 용의자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중화텔레콤<sup>3)</sup>의 대만 신장(新莊) 지역 데이터 센터에 「리니지 진동」이라는 개인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용의자들은 기술 및 원격 접속 관리를 제공하고, 가상 보물을 판매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였다.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일 접속하는 플레이어 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다.

증거 수집이 완료된 후, 2025년 3월 27일과 5월 14일, 가오슝(高雄)시, 타이베이(臺北)시, 신베이(新北)시 등 9개 지역에서 2차 수색 및 체포 작전이 실시되었고 차이(蔡)씨를 포함한 용의자 4명이 체포하였다. 현장에서 「리니지 진동」 서버 6대와 현금 1,154,600 대만 달러(NTD) 및 다량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침해 행위의 시장 가치는 최대 50억 대만 달러(NTD)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사건은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위해 대만 가오슝(高雄) 지방검찰로 이송되었다. (2025.08)

역주:

- 1) 중국어명 遊戲橘子數位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Gmania Digital Entertainment Co., Ltd (Gmania)
- 2) 리니지의 중국어명은「天堂」이고, 불법복제된 서버의 명칭은「撼動天堂」이고 이를 의역하였다.
- 3) 중국어명 中華電信

**TIPLO**  
Attorneys-at-Law

K250813Y2

### 03 지혜재산국은 「대만 친환경상표 산업 포트폴리오 분석 - 2025 년 최신 보고서」를 발표

대만의 친환경 상표 등록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2024 년에 「지난 10 년간 대만 친환경 상표 산업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25 년에는 최신 연간 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대만 친환경 상표 산업 포트폴리오 분석 - 2025 최신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대만의 친환경 상표 등록 출원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이 국제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전략에 대응하여 친환경 산업 상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기업<sup>1)</sup>, 미국의 애플 및 케이맨 제도의 알리바바그룹이 대만의 주요 친환경 상표 출원인이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 년(2015-2024 년) 동안 대만의 친환경 상표 출원은 전체 상표 출원의 약 14.30%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초기(2015-2017 년)에는 평균 13.75%, 중기(2018-2021 년)에는 15.57%, 후기(2022-2024 년)에는 13.03%였다. 후기에는 녹색 상표의 수와 비율이 변동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4 년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출원은 주로 「에너지 절약», 「오염 방지», 「에너지 제품」 분야에 집중되어 전체 친환경 상표 출원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는 친환경 산업이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혜재산국은 9 개 분류에서 상위 3 대 출원인 순위에 통일기업, 애플, 알리바바 그룹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통일기업과 애플은 「에너지 제품»,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 상위 2 개씩을 차지했다. 특히 통일기업은 지난 10 년간 대만 친환경 상표 출원 상위 3 대 출원인 중 1 위를 유지해 왔다.

국내 친환경 상표 출원 상위 3 대 기업 순위는, 통일기업, 애플, 알리바바 그룹순이었다. 이전 기간(2014-2023 년)과 비교했을 때, 금회 기간(2015-

2024 년) 상위 3 개 기업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이 중 1 위 기업인 통일기업은 친환경 상표 출원 건수가 15.65% 증가하여 유일하게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2025.08)

역주:

1) 중국어명 統一企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통일기업)



K250805Y6

## 04 2025 년 상반기에 대만 세관은 4 억 7 천만 대만달러(NTD) 규모의 위조 상품을 압수

대만 재정부 세관총국은 지혜재산권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관이 국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년 상반기에 위법 행위는 195 건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위조품은 3 만 건을 돌파했으며, 물품의 시가 총액은 4 억 7 천만 대만 달러(NTD)에 달했다.

세관 당국은 상반기에 압수된 위조품의 대부분이 의약품, 3C 제품, 생필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품이 만약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국경에서 압수되는 위조품의 대부분이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특급 배송을 통해 왔다고 밝혔다. 부도덕한 업체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위조품을 중국으로 밀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관 당국은 온라인 쇼핑 시 상품의 출처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조품 구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5.08)